

안동경찰서 — 특별 수사대
 경북포항시 — 명예 감시관
 경주박물관 — 핫 라인설치

문화재 지키기 “물 샴 틈 없게”

포항시와 안동경찰서,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수사대’ 편성, 명예감시관 지정, ‘방범 핫라인’ 개설 카드로 문화재 도난 도급에 방에 나섰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국보강탈사건으로 인한 강력대응책의 일환이다.

안동경찰서는 5월 26일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지키기 특별수사대’ 발족식을 갖고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문화재 전문 수사요원 4명으로 편성된 ‘문화재 지키기 특별수사대’는 지정 문화재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각

별한 관리체제를 유지해 문화재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포항시는 문화재별로 명예 감시관을 지정하여 지방 문화재 보호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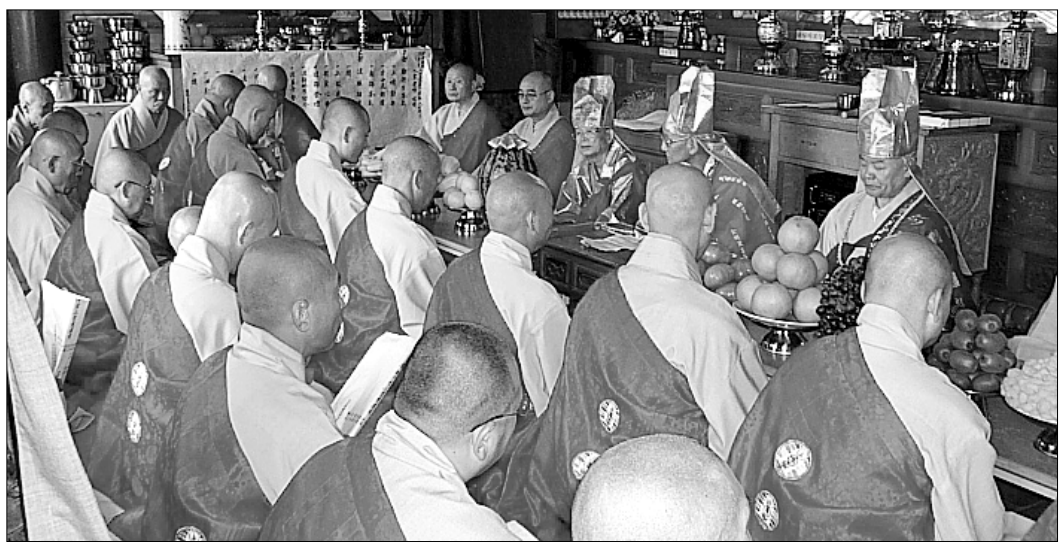
포항시는 최근 문화재 명예감시관을 통해 심야 등 도난, 도굴에 취약한 시간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이 보관하는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방지시설 및 위탁보관을 권장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장마기간인 7월에서 10월까지의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박물관과 경찰서를 잇는 핫라인 개설을 통해 외부 침입에 의한 도난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체 방범 체계에 따라 외부인의 침입에 경보가 울리면 경비원들이 전화를 통해 경찰에 알리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고종 4대문도 합동 범백전수식이 경북종무원 주관으로 대구 관암사에서 5월 28일 개최됐다.

태고종 첫 합동 범백 전수식

대구 관암사서, 스님 36명에 가사·범호

태고종 합동 범백전수식이 5월 28일 대구 팔공산 관암사(주지 혜공)에서 열렸다.

태고종 종주인 태고보우국사 이래 상봉, 팔봉, 영파, 대륜스님 등으로 이어진 태고종 4대 대보 문도가 합동으로 모여 범백을 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에서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는 상단권공으로 시작해 부처님전에 범백전수를 알리는 고유문 낭독, 범봉을 전하는 전법게송 등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합동 범백전수식에는 태고종단 원로회의 의장 일우스님, 전 사정원장 연운스님, 전 총무원장 해초스님, 대구경북 종무원장 해공스님, 해담스님, 진담스님, 지허스님, 환허스님 등 모두 8명의 스님들이 36명의 법제자들에게 가사를 전하고 범호를 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범을 전수 받은 36명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단한 수행정진을 통해 이 땅에 불국정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구 기자



△해인사 승려노후복지원 ‘자비원’ 전경.

노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승려노후복지원이 문을 열었다.

5월 26일 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원식을 가진 노인복지시설 해인사 자비원은 무료 양로원과 3개 동의 임대주택을 갖추고 있다.

자비원은 ‘가야산 실버타운’을 해인사 측에서 인수해 시설을 정비

대구 앞산 은적사 주지 허운스님이 5월 25일 시지동 고산성당 일요미사에 참석, 종교간 화합에 대해 발언했다.

500여명의 카톨릭 신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미사에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은적사 허운스님의 성당 방문은 지난 부처님오신날 고산성당 정홍규 주임신부가 앞산 은적사를 방문한데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고산성당에 연꽃 활짝 피었다”

은적사 허운 스님, 종교간 화합 법문

허운스님은 “종교간의 화합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낙수물이 떨어져 구멍을 만들어 내듯이 자칫 소중함을 잃을 수 있는 서로간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화합이 완성될

스님의 법문에 이어 고산성당 정홍규 주임신부는 “성당에 연꽃이 활짝 피어났다”며 “스님의 말씀처럼 모든 종교가 화합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원구 기자

승려노후복지원 ‘자비원’ 개원

해인사, 무료양로원 3동·임대주택 갖춰

하고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2000여평의 부지에 3층의 본관을 비롯해 스님들을 위한 3개 동의 임대주택과 선방 <광명선원>이 운영되고 있다.

자비원 선방에서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안거기간동안시설이나 임대주택에 입소한 스님들이 참선수행정진을 하고, 평소에는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공간으로 개방된다. 해인사는 또, 하루 두 차례의 개인명상과 산책, 정기법회 등 심신안정과 노년 생활을 재발견 할 수 있는 복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료 요양시설에 21명, 임대주택에 46명 등 67명의 비구스님

들이 입소해 정진중인 해인사 자비원은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승려 노후복지시설 운영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는 장기적으로 비구스님들을 위한 노후정진 공간도 별도로 마련,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리려는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현재 시설과 임대주택을 포함 104명으로 한정된 정원을 늘리기 위해 점차적으로 건물을 확충하고 향후 5년 내 5백여명 수용시설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의 (055)934-0805

박원구 기자

지장 스님 민요부르고 불자들 장단 맞추고

경기민요 이수자 지정 첫 발표무대

5월 27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예능보유자인 목계월 선생과 나란히 앉아 청춘가, 화창 경기민요 12잡가 출연가, 노랫가락 등을 부른 창녕 영명사 주지 지장스님(사진 왼쪽 첫번째), 소리 경력 20년의 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지정된 것을 기념한 첫 발표회였다 이날 공연



에는 김홍규 창녕 군수, 영산재 지정보유자 석봉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범패 등 불교문화 맥 잇는다

영산보존회, 대한불교전통예술대 개원



△부산 영산재 보존회는 5월 26일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개교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는 5월 26일 오전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학장 진하)을 개원했다.

범음, 범패, 작법무, 천수비라를 전수하는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이하 전통예술대)은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연구 및 육성을 위해 개원했으며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안정사 해강스님을 비롯해, 고문으로 추대된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범화종 총무원장 해륜스님 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

경과보고, 감사장 전달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김해 은하사 대성스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김용하 민족문화출판사 대표가 전통예술대 후원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천미희 기자

소년소녀가장들에 성금

해원정사, 열린음악회도

5월 28일 제2회 소년소녀가장들이 열린 음악회가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희) 대웅전 앞 특별무대에서 고산스님을 비롯해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음악회는 성시원, 신계행, 이동원 등 인기 가수 공연, 해원정사 합창단 음성공양, 화생회 승무, 북춤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진행됐다. 해원정사는 음악회에 서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고산 장학회는 동국대 등에 재학 중인 24명의 학인들에게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육법등 (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려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할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출판 및 대리점 모집

2003학년도 후기 대학(학부)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1.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4년제 학위 과정입니다.
2.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105학점, 명지대학교 시간제 이수료 35학점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 인적사항부정관명의 학사학위를 취득.
3. 진로: 학사취득 후 일반대학에 편입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가능.
3. 모집기간: 수시모집
5. 모집전공 및 인원
 - ◆목조각전공(목조각, 소목, 대목, 옷칠공예) 각 10명
 - ◆직물공예전공(염색, 직수, 침선, 매듭공예) 각 10명
 - ◆단청전공(화화, 단청, 민화) 각 10명
6.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 이수자, 전수생(이에 해당자는 조기졸업 가능)

2003학년도 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세문화·정보와 되어가는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1. 모집전공: 목질, 공예(단청 민화), 직물공예(침선, 염색, 매듭)
 2.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취득 소지자 예장자 및 동등 자격자
 3. 특전 및 제출서류
 - ① 전공분야 경력자는 입학특별전형
 - ② 전공관련 기술자 자격시험 응시가능
 - ③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졸업증명서
 1. 모집전공: 공예관련 모든전공
 2. 지원자격: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특전 및 제출서류
 - ① 본 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부여
 - ② 본 과정의 수료증은 본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취득
 - ③ 본 과정의 수료자는 동일계열의 정규과정 진학시 우선권 부여 및 취득학점을 일정부분 인정
 - ④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 재직증명서
- 전형일정: ◇모집기간: 2003년 5. 10(월) - 6. 20(금) ◇등록기간: 2003년 6. 28(금)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수능시험과 무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3매(반 명함판 3cm x 4cm),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접수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명지대학교 전통공예학과 사무실 우)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 02) 300-1463-5

New Millennium Vision
 사랑과 창조의 새천년 명지

명지대학교